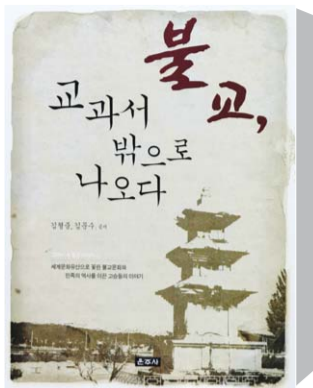


불서 읽기 캠페인

# 교과서 밖에서 '불교의 변신'은 무죄!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온다 김형중·김문수 지음 | 운주사 펴냄 1만 5000원

교과서 안의 불교가 반란을 일으켰다. 조계종립 동대부고의 국사교사로 재직 중인 김형중 교편사가 한국의 교과서에 드러난 불교 왜곡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해 불교를 교과서 밖으로 꺼내 재정리 한 것. 불교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올바른 관점의 필요가 교과서 속 불교 이야기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

초중고 교과서에 기술된 불교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정 보완 하는데 3년의 시간을 할애했다. 교과서란, 학생을 교육시키는 주교재로 국가의 이념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시키는 보편적 사회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잘못된 불교 지식의 확산은 학생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의식이 필자의 저술 동기가.

이 책은 교과서를 폭넓게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하다. 세계 문화유산에 빛나는 불교문화유적 여덟 곳과 민족의 역사를 이끈 열두 명의 고승을 소개한다. 신라 최대의 왕궁 사원인 황룡사를 비롯하여 인류 기록 문화의 보배인 팔만대장경은 물론 민족의 자랑스러운 고유문자 훈민정음과 불교의 깊은 관계를 모색했다. 한국의 불교역사 증신라 불교의 이차돈의 순교를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한용운 스님까지의 시간을 아우른다.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근거로, 알아야 할 핵심어와 인물도 정리하였다. 풍부한 삽화와 설화를 소개하고, 용어 해설과 인물 설명을 차별하여 지면을 구성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를 명확히 짚어 최대한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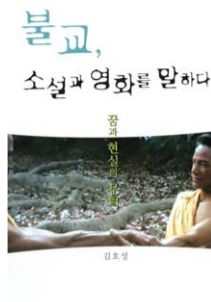
대학수능능력시험 및 행정고시에 출제된 불교관련 문제를 소개하였다. 북쪽에서는 지난 20년간 초중고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의 오류와 편향성을 일목요연하게 지적했다.

현재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편사로 재직 중인 저자는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상임부회장과 한국종교교육학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공동 저자인 김문수씨는 저자의 아들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다. 현재 불교서적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청소년 관련 분야에 교육자인 아버지와 젊은 생각을 지닌 아들이 합심했다. 단순한 교과서 소개 이상으로, 올바른 불교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초중고 교과서 시장의 개척 도서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 영화속에 찾은 불교

소설읽기? 영화보기? 불교 경전 읽기와 다르지 않다! 22년간 저술 활동을 펼쳐온 김호성 교수(동국대)가 불교와 소설 그리고 영화의 3자 대면을 시도했다. 스스로를 '잡(雜)'의 세계 즉 화엄의 세계에 살고 있노라 소개하면서 불교라는 브랜드의 안경을 쓰고, 공화(空華) 만발한 소설과 영화를 바라본다.



불교, 소설과 영화를 말한다 김호성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 원

불교와 소설 그리고 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간을 주제로 삼는다는 점이다. 삶의 주체이자 오온(五蘊)의 가화합에 의한 연가적 산물인 인간. '바로 당신'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꿈과 현실의 문턱'이라는 부제에서 보이듯 필자는 성스러운 속(俗)의 경계를 소설과 영화로써 넘나들며 결국 이들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 근사의 내일이 '둘이 아닌[不二]'을 강조한다.

상처의 치유와 부처란 무엇인가를 논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보자. 그저 바라보는 사랑의 서사 방식에 대해 보조 지능의 '이침(伊鍼)과 사찰(事機)'에 의한 업장 소멸을 거론한다. 상처는 원리적인 참회를 넘어 현실적인 참회로서 도달해야만 치유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밀양'은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한계

를 드러낸 영화라고 말한다. 필자는 "영화를 보고, 영화를 관을 나오면서, 내 가슴속에 남은 여운을 사유하는 과정 속에 속해 된 그 무엇을 불교로써 밖으로 풀어내 보았다"고 말한다. 학자 김호성 교수가 필자로써 변주하는 일상의 화두다. 모두가 느끼는 생각이 보편적인 이 시대의 통념이라면, 이 책에서 불교가 말하는 소설과 영화는 어렵다고 느껴는 불교가 일상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불교학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독백도 이 책을 신선하게 하는 매력이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혹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과의 만남에 대한 반가움일 것이다.

가연숙 기자

## 종교와 어우러진 작가의 정신세계

"우리가 세속의 질곡에 갇혀 사는 듯 하나 더 쥐려고 아우성 거리고 있는 동안에 천 년 내내 불어 오는 바람이 사찰의 풍경 소리를 흔들어 준다." ('사찰에 부는 천년의 바람' 마지막 구절)

소설가 최인호. 한국의 지식인 가운데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의 소설은 통속과 탐구를 넘나들며 '현대'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을 적어 왔다. <길 없는 길>의 경우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일생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다. 이어 내놓은 <상도> <해신> <유림> 등의 대작들도 우리의 과거 속에서 발견한 가치들을 현실로 접목 시키는 길을 드러내 보였다.

그는 종교를 벗어난 사람같이 보인다. 그의 개인사와 개인적인 가치관을 작가정신에 철저히 융합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다. 어떤 종교교인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온전하게 종교적 진리에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종교적 대상은 매우 폭이 넓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아들, 딸, 하느님과 부처님, 신부님과 수녀님, 목사님, 스님 그리고 자연까지. <산중일기>도 그러한 작가 최인호의 내면이 잘 투영된 산문들로 가득하다. 제목을 보면 산사에 기거하며 세상사



산중일기 최인호 지음 랜덤하우스 펴냄 | 1만 1800원

를 정리한 것 같은 선입견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을 다소 종교성이 부여된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된 결론이 작가의 소명임을 드러낸다.

주로 산사의 풍경을 담은 백종하씨의 사진이 시원스레 장엄된 책의 내용도 사진처럼 담백하다. 물상을 예찬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을 비판하거나 탐닉하는 것도 아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가다운 관조와 사색의 폭이 웅숭깊다는 얘기다.

작가 최인호의 정신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가족과 자연과 영적인 스승들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 번 조절할 수 있는 자기수행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임연태 기자

## 일상에 묻혀진 금강경 일깨우기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의 모델이었던 현몽 스님이 <금강경>을 새롭게 해석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간 삶의 실상을 저절하게 경험하고 산골에 묻혀 지내다가 불현 듯 찾아 온 것이다. <금강경>이라는 '덩 빈 가르침'을 시퍼런 칼처럼 차고. 그러나 현몽 스님은 <금강경>을 통해 <금강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과 행동에 묻혀 있는 <금강경>을 일깨운다. 책을 꾸민 그림들도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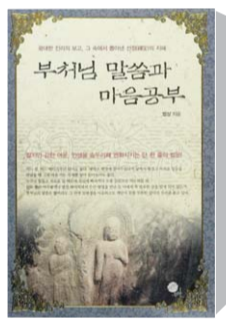
시인 황정원씨는 이 책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현몽 스님의 금강경 읽기는 파격과 강렬함이 함께 스민다. 어떤 이는 당혹해 하거나 놀라움이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마주봄이며 접속임을 깨달을 것이다." 영화배우 안성기씨도 같은 목소리다. "역시 파격이고 신선함이다. 현몽 스님, 앞으로도 조금 더 살아서 그 새벽의 목소리를 들려주소서."



한 나무 아래 사흘을 머물지 않는다 현몽 글 | 그림이가서 펴냄 | 1만 2000원

## 일상의 '의지처'

좋은 말씀에는 힘이 있다.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경전 가운데 그런 힘이 강한 구절들을 골라 놓고 일상에서 겪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그 가르침에 대한 소화를 돕는다. 짙지만 여운이 강하고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큰 의지처가 아니겠는가? 법상 스님은 바로 그런 의지처를 한 권의 책으로 제시한다. 시적인 운율의 간결한 구절들이 내포하는 삶의 지혜를 소화효소처럼 제공한다.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 | 무한 펴냄 | 1만 3500원

## 발로 뛰고 가슴으로 기록

'현장에서 쓴 우리 차의 역사와 문화'라는 부제가 설명하듯 우리나라의 차 문화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보고서다. 딱딱한 글의 상적인 언어로 나열된 보고서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 해 온 차 문화를 따뜻한 눈길로 살핀 보고서. 차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담사이고 연구이며 글쓰기인 것이다. 영동지역에서 경남의 하동까지. 전국 곳곳에 묻혀 있는 차 문화의 진면목을 일일이 확인하고 느끼고 고증하여 하나의 서사를 이루었다.



손연숙의 차문화 기행 손연숙 지음 | 이른침 펴냄 | 2만 5000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3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돌
6	절을 기하게 잘하는 법	청경	붓다의 마을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8	행복한 미소	성전	거미
9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10	술 취한 꼬끼리 길들이기	이진 브라흐마	이레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붓다, 이 세상에 나투신 이유?**  
 고타마 붓다  
 [성열지음 | 도서출판 문화문고 | ₩22,000원]

#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地藏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파와 불자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도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부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에게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9999

**원불봉안, 탕화, 수미단, 닻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地藏선원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